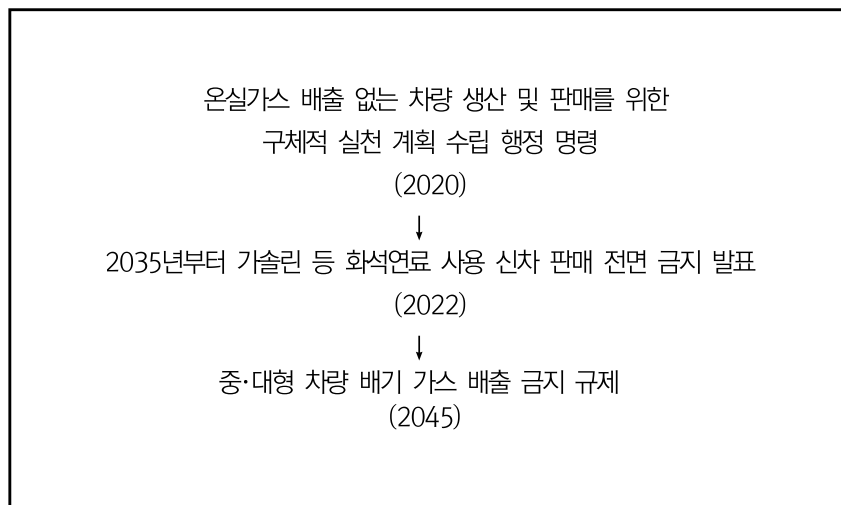


미 캘리포니아, 2035년부터 가솔린 신차 판매 금지



◆ 전기 및 수소차 비율 확대 계획 (가솔린 차량 금지 대안)

시기	전기·수소차 비율
2022년	16%
2026년	35%
2026년	68%
2026년	100%

◆ 2035년 캘리포니아주 가솔린 신차 판매 금지 관련 보완 사항

- 2022년 7월 기준으로, 평균 가솔린 신차 가격 대비 전기차 가격이 약 1.4배 정도 높아 같은 비용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이 어려움
-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 대비 주(州) 내 전기차 충전소가 약 80,000여 곳으로 부족한 상황임

1. 미 캘리포니아, 2035년부터 가솔린 신차 판매 금지

◆ 가솔린 신차 판매 금지 배경

-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주 내 탄소 배출량 대폭 감축 및 기후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35년부터 가솔린 신차 판매 금지 조치를 결정함
- 현재 캘리포니아 주 총 온실 가스 배출량에서 교통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며, 스모그 형성 오염 원인의 80%, 유독성 디젤 배출량의 95%가 교통수단에 의해 발생함
-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분지(Los Angeles Basin)와 센트럴 밸리(Central Valley)는 미국 내에서 가장 환경이 유해하고, 대기질 독성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남
- 이번 조치는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가 2020년에 무공해 신차 판매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지 2년 만에 결정된 것으로, 주 환경 규제 기구인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CARB,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가 관련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확정됨

◆ 2035년부터 가솔린 신차 판매 금지로 인해 예측되는 변화

-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21년 12%였던 전기·수소차 비율을 2026년 35%, 2030년 68%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35년에 100%까지 증가 계획을 수립했음
- 가솔린 신차 판매가 완전히 금지되는 2035년 이후에도, 가솔린 중고 차량은 구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다른 주에서 구매한 가솔린 차량을 캘리포니아주에 등록하는 것은 허용됨. 그러나, 캘리포니아 인근 주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잇따라 제정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조치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는 가솔린 차량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한 15개국 국가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미국 내에서 무공해 차량 (zero-emission vehicle)으로의 혁신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임
- 금번 결정은 행정적인 절차로 연방 정부의 최종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환경 문제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바이든(Biden) 정부에서는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임. 캘리포니아주의 결정이 최종 행정 절차를 거쳐 실생활에 적용되면, 이는 미국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조치의 시행으로 기대되고 있음
- 한편, 금번 조치에 대해 자동차 제조업계에서는 가격, 충전 용이성 등을 이유로 전기차로의 완전한 이행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II. 캘리포니아주 가솔린 차량 관련 규제 계획

캘리포니아주 가솔린 차량 규제 주요 내용

목적/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5년부터 가솔린 신차 판매 금지 - 2040년까지 자동차로 인한 온실 가스 배출량 50% 이상 감소 - 2045년까지 모든 중·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배기 가스 배출 금지 규제 도입
관리 및 집행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주요 내용	<p>※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2035년부터 가솔린 신차 판매 금지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리포니아 주(州)가 가솔린 신차 판매 금지령을 승인하였으며,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는 2035년까지 가솔린 차량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해나가 2035년부터는 판매를 완전히 금지할 계획임 - 2022년 16%인 전기·수소차 신차 비율을, 2026년 35%, 2030년 68%, 2035년에 100%까지 높이고자 함 - 자동차 제조업체는 현재부터 2035년 사이에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 할 경우, 연간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각 차량에 대해 2만 달러(약 2,78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p>※ 가솔린 신차 판매 금지를 위한 보완점 및 한계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석 연료 신차 평균 판매 가격이 48,000달러(약 6,600만 원)인 데 비해, 전기차는 66,000달러(약 9,100만 원)에 판매되고 있어 약 1.4배 정도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최근 통과된 기후 패키지(Climate Package)에 큰 폭으로 인상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현재 캘리포니아 내에 80,000개의 충전소가 있는데 급증하는 전기차 수량에 대비해 충전소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2025년까지 25만 개, 2030년까지 71만 4,000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출처 : Office of Governor, Governor Newsom Announces California Will Phase Out Gasoline-Powered Cars&Drastically Reduce Demand for Fossil Fuel in California's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참고 문헌

□ 참고 사이트

1. Los Angeles Times, 「California's coming gas car ban: What it means」
2. Office of Governor Gavin Newsom, 「Governor Newsom Announces California Will Phase Out Gasoline-Powered Cars & Drastically Reduce Demand for Fossil Fuel in California's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3. The Guardian, 「California bans sales of new gasoline-powered vehicles by 2035 in milestone step」